

강진군 로컬푸드 전 품목 할인...생산자·소비자 상생

‘반값 관광’ 정책 연계...오늘까지
농산물 우수성 전파 경제 선순환
직매장 활성화 지원책 지속 발굴
지역 관광 수요 확대 탄력 기대감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일까지 ‘로컬푸드 활성화 기획전’을 시행 한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 구조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전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속

적인 성장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강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함께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착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강진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값 관광’ 정책과도 연계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반값 관광 실적에 반영돼 반값 관광을 신청한 많은 관광객이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해 더욱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강진군은앞으로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넘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까지 염두에 둔 기획

이다”며 “구매 영수증으로 반값 관광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주민은 물론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장내 기생충 감염 무료 검진 강진군, 간흡충 등 11종 검사

전라남도 강진군보건소가 5월1일부터 20일까지 기생충 유행지역 중심 마을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간흡충(간디스토마)을 포함한 장내 기생충 11종에 대한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검진은 지리적으로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강이나 저수지 인근 주민, 민물고기 취급업소 종사자, 민물고기 생식을 즐겨 먹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 희망자는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용기(대변통)를 수령한 후 밤알 크기 정도의 분변을 채취해 제출하면 된다.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재검진을 통한 완치 여부 확인 등 지속 관리를 실시한다.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 중 절반을 웃도는 간흡충은 감염되면 소화불량, 복통, 간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담관암, 간암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발암원인체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로 민물고기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조리도구를 사용해 감염되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강진=김윤복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 영암군가족센터, 5월2일부터 접수

전라남도 영암군가족센터는 오는 5월 2일부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사회적 학습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한다.

연 1회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교재 구입, 예제는 직업훈련 실습재료 구입, 자격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접수 기간은 1차 5월2일부터 30일, 2차 7월1일부터 31일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구비해 영암군가족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가족센터(061-463-2928~9)에서 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강진군 돌봄종사자들이 아르메니아, 목마가렛 등 꽃을 직접 심어 화분을 만들고 있다. 지난 25일 강진군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토닥토닥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강진군, 돌봄활동가 대상 봄꽃 가드닝 활동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난 25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에서 ‘토닥토닥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와 유지원 방과후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돌봄노동자들에게 지친 마음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힐링캠프에서는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봄꽃 가드닝’ 체험이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돌봄활동가들은 애니시다, 아르메니아, 목마가렛 등 봄의 정취가 가득한 꽃을 직접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과 교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강진군 제공

김은숙 군민행복과장은 “지역사회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활동가들이 존중받고 배려받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공감·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전라남도 해남군은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 및 지

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이며 보험 기간은 기본 1년으로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나, 피해 시 재산세 납부내역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분재학교 전문심화반 수강생 모집 신안군, 내달 24일부터 16주 운영

전라남도 신안군이 1004섬 분재정원에서 분재학교 전문심화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5월24일부터 총 16주 동안 운영되는 이번 전문심화반은 분재 기술 심화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직장인들을 위해 학습 시간을 주말에 편성했다.

1004섬 분재정원은 다채로운 수종과 형태의 고품격 분재 컬렉션을 자랑하는 곳으로 수강생들은 이론 교육과 함께 숙련된 전문가의 지도와 분재 제작, 관리, 병충해 방제 등 전문적인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분재 수형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대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아우르는 교육 내용은 수강생들의 예술적 안목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생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04섬 분재정원으로(061-240-8778) 문의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전문심화반 운영을 통해 분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무안군, 내달 2일부터 운영

전라남도 무안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2일부터 6월2일까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에서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 초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도움 창구’를 통해 1:1 맞춤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된 금액대로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6월2일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 또는 무안군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61-450-5250)으로 하면 된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안=김행연 기자

